



구마크



꽃 철쭉



새 갈매기



나무 해송



가정엔 ‘만복’, 중구엔 ‘번영’을

2004 제천례 봉행식 구민 참여속 성대히 거행

“갑신년 한 해도 구민 모두가 건강하고 가정에 만복이 깃들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천 중구는 지난 1일 정오 북성동 월미산 정상에서 ‘2004년 제천례 봉행식’을 거행하고 구민의 안녕과 구의 발전을 기원했다.

이날 제천례 봉행식에선 김홍섭 중구청장이 초헌관으로, 구의회 조영환 의장과 최무웅 부의장이 아헌

관으로 예를 갖추었다. 또 김종호 남부교육장과 정진우 중부소방서장이 종헌관으로 관모와 관복의 예를 갖추 9만여 구민의 수복강녕과 중구가 추진하는 사업의 번영을 빌었다.

집례 대축집사의 4배로 시작한 이날 행사는 헌관들의 봉행과 축관의 축문낭독 등 전통제례에 따라 엄숙하고 진지하게 진행됐다.

이날 월미공원을 찾은 500여 시민들은 옛 조상들의 전통 제례 봉행에 참여, 자신들의 가정에 평화와 건강이 깃들기를 축원했다.

중구는 이날 정상을 찾은 구민들을 위해 제기차기, 투호놀이, 연날리기, 소원지 날리기 등 ‘전통 민속놀이 한마당’을 마련, 제천례 봉행식과 더불어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을 되새기고 즐기는 전통의 장을 펼쳤다.

구정시책

- 주민기대에 부응하는 자치행정 실현
- 봉사과 나눔의 복지사회 실현
- 환경 친화적인 도시기반조성
- 활력이 넘치는 지역경제 육성
-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품격있는 관광도시 조성

주요기사

- 구정시찰단 민원현장 누벼 2
- 테마거리 - 동인천 청과물거리(채미전거리) 3
- 경제를 달린다 - 수협중앙회 인천공판장 4
- 인천국제공항 ‘제2의 비상’ 5
- 중국인거리에 대형문화공간 들어선다 6
- 우리동네이야기 - 신흥동 7
- 테마여행 - 애관극장 8
- 맛집 - 부앤부 8
- 이달의 영어·중국어·일어 회화표현 10
- 생활속의 수필 15

구정시찰단 민원현장 누벼

구청장과 간부 40여명,
추진사업현장 살살이 돌아보며

주민의견 청취, 각 부서간 정보교류 통해 현안해결키로



인천 중구는 지난 3일 구청장을 비롯한 과장급 이상 간부, 실무팀장 등 40여명이 참가한 '구정시찰단'을 구성해 주요 사업 및 민원 현장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방문은 차이나타운 조성 등 구가 추진하는 사업들의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결정하고 민원발생 지역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뤄졌다.

구정시찰단은 이날 버스 한 대로 오전 10시 구청 광장을 출발, 연안동 지역 민원현장인 축항로 보도육교 설치 사업 예상지를 비롯한 구 관내 15개소의 주요 사업현장과 민원발생 예상지를 돌아봤다.

현장에서는 사업추진 부서와 협조 부서간 의견에 대한 현장 토론회 및 현지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이 있었으며, 구정시찰단은 이날 점검하고 청취한 내용을 향후 행정추진에 반영키로 했다.

구정시찰단은 이날 연안동 불법가설건축물 정비계획지인 제2국제여객터미널주변·친수공원·남항부두 일대, 축항로 보도육교 설치공사현장, 염부두내 공

영주차장 조성지를 순회했다.

또 연안지역 특화거리(분수대) 조성현장, 인천항 일원 환경정비 계획지·연안부두 남항권 노상적치물 정비지, 신흥동 철로변 주변 정비공사 현장, 율목동 경로당 신축장, 문화관광정보센터 건립 현장도 들렀다.

아울러 송월아파트 주택재건축, 종합복지관 건립, 동인천권 기반시설 정비 현장과 신포시장 활성화사업, 월미도 해상테크 조성사업, 월미도 문화의 거리 정비 사업 현장도 점검했다.

구 관계자는 "구가 현재 추진하는 현안 사업들이 그 어느 때보다 많다"며 "이런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주무부서와 협조부서간 정보공유와 협조체계가 잘 이뤄져야 한다는 공감 아래 여러 부서가 함께 시찰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시찰을 통해 각 부서간 정보 공유가 더욱 원활히 이뤄지게 됐으며 현장방문을 통한 주민들의 건의 사항도 잘 들었다"며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도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담당부서에서 잘 처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칭찬합니다 중구 '효부상' 배권숙 씨

“제 운명으로 받아들였어요”

평생 알콜중독 남편때문에 고생, 3년전부터는 치매시어머니도 모셔와

각혈을 하면서도 소주를 하루 서너 병씩 들이키는 남편과 욕창에 걸려 대소변도 보지 못하면서 치매에 걸려 머느리만 보면 때리고 물어뜯는 시어머니...

“내 이야기를 책으로 쓰면 10권도 넘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을 우리 주변에서 이따금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배권숙(58) 씨는 아마 100권쯤은 책이 나올 것이다. 24살에 결혼해 매일 술 먹고 때리는 남편이 지겨워 마흔 넷에 집을 나왔지만, 또 다시 만난 남편조차 알콜 중독자였다. 거기에서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까지 모셔야 했던 것이 '그녀의 인생'이다. 지난해 10월 중구 구민의 날에 그가 받은 '효부상'은 그의 고단한 삶을 위로하기엔 오히려 너무 초라해 보인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 줄초상을 치렀어요. 남은 건 빛 5천만원 뿐입니다. 그래도 어찌겠어요. 내 팔자려니 하고 살아야죠. 자식 새끼 기대며 열심히 살아가 바랍니다.”

북성동에서 식당 '시골보리밥집'을 하고 있는 그녀에게 먼저 떠나간 남편과 시어머니의 유산은 '빚더미'이다.(지난 12월에는 남편이, 올 1월에는 시어머니가 각각 세상을 떠났다.) 작은 식당 하나 운영하면서 근근히 모은 돈은 몽땅 병원비로 들어갔고 그것도 모자라 카드로 병원비를 낸 것이 5천만원까지 쌓였다.

생선장사에서 떡장사에 이르기까지 결혼을 한 24살 때부터 그녀는 안해본 게 없을 정도로 '산전수전'을 열두 번쯤은 겪었다. 처음, 아무것도 모르고 결혼한 남편은 일은 안하고 매일 술을 마신 뒤 배씨를 괴롭혔다.

배씨는 그렇게 고향 군산에서, 서울 구로로 이사해 살다가 20년만에 집을 뛰쳐 나와 인천으로 와야 했다. 여우를 피하니까 호랑이를 만난다고 했던가. 그가 두번째 만난 남편 역시 술로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사람이었다.

“남편은 피를 토하면서도 소주를 하루 서너 병씩 들이부었어요. 그래도 그이의 효성은 자극했어요.”

배씨는 그럼에도 먼저 세상을 떠난 두번째 남편에 대한 칭찬을 잊지 않는다. 남편의 효성은 치매걸린 시어머니를 모셔야 하는 배씨의 부담으로 이어졌는데도 말이다.

“보험회사에서 약정한 돈을 빨리 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배씨의 소원은 보험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는 보험회사로부터 빨리 돈을 받아내 카드빚 독촉에서 해방되는 일이다.

“빚만 갚으면 한시를 놓을 것 같아요. 손발이 멀쩡한데 입에 풀칠이아 못하겠어요.”

배씨의 굶고 거친 손마디와 손등은 그녀의 '고단한 인생유전'을 한마디로 말해주고 있었다.



2004년 예산은 어떻게 쓰여지나!

■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구분	합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구정살림	88,816	83,775	5,041

■주요사업현황 (단위 : 백만원)

기초생활보장급여	5,803
사회복지관운영지원	287
자활후견기관 운영비지원	150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보조	273
우리동네 환경지킴이 사업	236
경로당지원 사업	1,925
아동복지시설보호 사업	1,564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573
미혼모시설 건립	744
공공근로사업	269
해안쓰레기 수거사업	450
농업임지정지불사업	367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	475
도서낙도개발사업	380
도원동 70개단 정비	2,000
구읍베타 환경정비	2,000
향동7가 소로 3-4 도로개설외 4	600
차이나타운내 중저가 상품거리 조성	900
월미관광특구문화대축제	200
구정사(의회)신축공사부족분	500
구정사(특별관)건축	400
종합복지관 건립	1,582
정소대행수료	2,400
송월동1가 소3-69도로개설	350
향동7가 소3-4도로개설	150
향동7가 소3-5도로개설	150
향동7가 소-22도로개설	150
향동7가 소-23도로개설	150
월미도 해상관광택시 전용부두~ 용역	725
월미도 풍물의 장 토지매입	780
동인천권역기반시설 정비	1,100
근대역사박물관 및 심터조성	800
연안지역특화거리 조성	1,000
문화관광정보센터 전시시설 제작	280
차이나타운화교사당주변 조성	600
중국사대기서 벽화설치 및 벽화제작	500
자유공원내부지매입(부족분)	300
차이나타운공영주차장주차타워설치	1,000
내동108번지일원 주차장조성	1,160

동인천 청과물거리
[채미전거리]

이 거리에 ‘과일 향기’가 만발한다

1900년대초 노란참외물결로 채미전거리라 불려,
현재 4~5곳만 명맥유지해



‘동인천역 건너편 거리에선 과일 향기가 난다.’

경인전철 동인천역 건너편 앞길에는 지금 과일이 수북하다. 사과, 배, 오렌지, 귤, 사과, 딸기 등등 달콤한 과일들이 내뿜는 상큼한 내음이 콧속을 파고 들며 미각을 유혹한다.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이곳에는 과일을 사려는 단골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과일은 매일 새벽 5시에 삼산동에서 가져옵니다. 값도 대형 할인점에 비해 20%정도 싸게 팔고 있어요.”

40여년간 아버지가 이 곳에서 과일장사를 해왔다는 ‘성환상회’ 대표 문영호씨의 아들 정환씨는 상품에 대한 자신감을 이렇게 드러냈다. 이곳은 인천 과일의 메카라 할 수 있는 ‘동인천청과물공판장’이다. 인천토박이들은 중구 용동 9번지 앞길 200m에 이르는 이 거리를 ‘채미전거리’라고 부르기도 한다. 채미는 참외의 사투리이다.

‘성환상회’ ‘동인천청과’ ‘인천청과’ ‘28번 중도매

인’ ‘분동상회’ 등 이곳엔 현재 몇 안되는 과일도매가게만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지만 과거 이곳의 모습은 지금과는 크게 달랐다.

이곳이 과일거리의 모습을 처음 갖춘 것은 1910년대 쯤이다. 당시 중국인과 일본인들이 용동 주변의 송림 송의 용현동 일대 과수원에서 재배한 복숭아 배 사과 등 여러 과일을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이곳에 내다팔면서부터이다. 내동 닭전거리, 용동 큰우물거리와 함께 인천 3대 거리로 꼽히던 채미전거리는 기차를 타려는 사람들이 쓰리재(경동)를 넘어 축현역(지금의 동인천역)으로 다니면서 자연스레 형성됐다. 당시 동인천역과 용동·내동 등지를 잇는 길목이었으므로 상권적 측면에서 ‘목’이 아주 좋았던 곳이다.

채미전거리에 청과물도매시장이 형성된 것은 1930년대를 전후해서이다. 이때 부조례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던 인천청과주식회사가 설립돼 도매업무를 시작했다. 청과물도매시장이 들어서면서 물량도 크게 늘어 그 무렵 여름철이면 경인선 철로변 인근 200여평 공터에 참외를 쌓아놓고 흥정을 벌이곤 했었다. 이때문에 이곳에는 특히 여름이면 온통 노란 물결로 출렁였다. 부천소사와 서울 오류동 등에서 생산된 참외가 모두 이곳으로 모인 것이다. 오류동에서 생산된 참외는 당도가 높은 ‘오릿골 참외’라고 해서 매우 인기를 끌었다.

한국전쟁 이후 참외시장은 농촌의 황폐화로 한동안 자취를 감췄다. 그랬다가 다시 지금의 청과물도매시장 꼴을 갖추나가기 시작한 것은 50년대 말에서 60년대 초

부터이다. 이 때부터 ‘채미전거리’란 이름 대신 ‘동인천청과물공판장’으로 불리기 시작했다.

중매인과 도매상인들은 청과물공판장을 그냥 ‘강시장’으로 부르기도 했는데 면적 500여평의 청과물공판장안에 야채시장과 고추·마늘 등의 도매상이 쭉 늘어서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에 도매상이 1백여곳, 노점상이 30~40명에 달했다고 하며, 여름철에는 보통 오전 5~6시께, 날씨가 추워지는 늦가을부터 초봄까지는 8시에 장이 열려 밤 늦게까지 이어졌다.

동인천공판장의 상권은 지난 82년 6월 동인천역과 송의동간 1.9km의 도로를 확장하기 위해 철로변 일대 건축물을 철거하면서 위축된다. 그후 시가 주차장 건립을 위해 청과물시장 부지를 매입하면서 대다수 상인들은 동구 송림동 동부시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채미전거리 인근에는 각종 채소를 경매하던 채소시장(일명 강시장)도 있었다. 1천200여평 부지의 이 시장에서는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배추 무 상추 등 각종 채소의 경매가 이뤄졌다. 채소시장은 97년까지 운영돼 오다가 남동구 구월동 농축산물시장이 문을 열면서 그리로 옮겨갔다. 채소시장 자리에는 2000년 12월부터 동인천공영주차장이 들어서 운영중이다.

요즘 채미전거리에선 키위, 오렌지, 레몬, 거봉 등 외국과일과 꽃감 등도 판매한다. 없는 과일류가 없다는 얘기가. 동인천상권이 위축됨에 따라 과일가게도 과거에 비해 고객이 줄었지만, 과일가게들은 여전히 과일 향기를 내뿜고 있다.

중 구 의 옛 풍 물

존스톤 별장



이 양관은 상해에서 항만 시설 공사로 치부를 한 영국인 제임스 존스톤이 1905년에 지은 여름 별장이다. 라인 강변에 서 있는 중세기의 성관을 방불케 하는 웅장하면서도 아기자기하게 꾸며진 화려한 건물로 바다에서 보면 응봉산 끝에 우뚝 서 있는 조망이 참으로 아름다웠다. 인천을 고향으로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랜드마크를 이루고 있었다.

제 1차 대전 후 일인 사업가에게 팔렸다가 1936년에 이천부가 구입하여 인천각이란 이름으로 영빈용 숙박 시설로 사용하였다. 그 후로는 존스톤 별장보다 인천각이란 이름이 널리 알려져 왔다.

광복 후 인천에 진주한 미군이 장교 숙소로 이용하다가 6·25동란 중 인천상륙작전의 함포 사격으로 전파되어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우리땅에 영국이 마련한 건물을 미국이 부식 버린 셈이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한미 수교100주년 기념탑이 말없이 서 있다.

1세기도 안 되는 짧다면 짧다고도 할 수 있는 세월에 역사는 이 양관을 통해 많은 교훈을 인천에 남기고 있다.

경 제 를 달 린 다 -
수협중앙회 인천공판장

옛 명성 창기위해 '고군분투'

어장줄고 감척되며 안팎어려움 · 38명 직원 혼연일체로 새벽열어

수협중앙회 인천공판장(장장·조남직)의 하루는 새벽 5시30분쯤 열린다.

중매인, 매침인, 경매인 등 공판장에 모인 사람들은 방금 바다에서 건져올린 광어, 우럭, 쭈꾸미 등등 싱싱한 활어를 놓고 활발한 경매를 벌인다.

그렇게 남들이 모두 달콤한 꿈속에 빠져있는, 혹은 부시시 눈을 비비고 일어나 하루를 시작할 준비를 할 때쯤 수협중앙회 인천공판장의 사람들은 중요한 하

루 일과를 마감한다. 수협중앙회 인천공판장에서는 38명의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펄펄 뛰는 물고기처럼 업무에 몰두하고 있다.

수협중앙회 인천공판장은 지난 62년 대한수산중앙회가 운영중인 인천공판장을 수협중앙회가 인수하면서 처음 문을 열었다. 지금의 자리로는 73년 이전 해 왔으며, 93년 반가공 작업을 개시했고 97년에는 수산물 가공공장을 준공했다.

80년대 중반만 해도 이곳에서 창출하는 수익은 연간 800~900억원에 이르렀다. 그러나 국제적 분쟁 등으로 우리 어장이 작아지고 감척사업이 급격히 진행되면서 안팎으로 어장이 위축돼 왔다. 그러다 보니 지금은 운영이 사실상 많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광무 판매과장은 “국내외적으로 여건이 안좋지만 과거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 모든 직원이 노력하고 있으므로 곧 좋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세무행정서비스현장

우리는 21C 새 천년을 맞이하여 인천의 심장부 중구를 사랑하는 모든 구민 여러분과 함께 성공적이고 주도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하여 자주 재원 확충에 최대한 노력하면서 주민편의 선진세정을 실현하고자 공평과세 확립, 직원들의 업무능력 향상, 철저한 과세 자료의 정비 등을 통하여 신뢰받는 지방 세정 구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평하고 정확한 부과 징수업무의 정착과 친절행정을 바탕으로 주민편의 시책을 적극 발굴 실천함으로써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지방세정이 되도록 노력하면서 다음과 같이 다짐합니다.

- 우리는 납세자 권리 헌장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신뢰받는 세정 풍토를 구현한다.
- 우리는 주민편의 지방세정을 적극 발굴 실천함으로써 주민을 위한 서비스 행정에 최선을 다한다.
- 우리는 세무 민원실을 누구나 쉽게 방문하여 상담 할 수 있는 장소로 제공하고 친절히 안내하고 봉사하도록 한다.
- 우리는 납세자가 제출한 모든 서류는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 기간을 단축함으로써 납세자의 알 권리 충족과 투명한 세정을 실천한다.
- 우리는 납세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지방 세정에 적극 반영 될 수 있도록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지방세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 우리는 지방세 전문가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어떠한 유혹도 배격하며 청렴한 공직자상 수립에 선도적 역할을 다한다.

지방세정 공무원의 이행 표준

1. 납세자 권리 헌장의 성실한 이행

◎납세자에게서는 서면조사에 대한 서면통지, 과세예고통지, 비과세 또는 감면신청의 반려통지가 있는 경우 과세의 적법여부에 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였습니다.

- 심사청구기간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 일 이내

- 방법 : 심사청구서 2부를 시장에게 제출

- 기재사항 : 청구인의 성명, 주소, 이의신청 결정을 받은날, 이의 신청 결정사항, 불복사유

◎구민 여러분은 모두가 성실한 납세 의무자입니다

- 구민 여러분이 제출한 모든 서류는 구체적인 탈루나 오류를 인정 할 만한 내용이 없는 한 성실하고 진실한 자료로 추정 하겠으며, - 신성한 납세의무 이행에 관한 부과, 납부, 체납상황의 정보와 지방세 납부과정에 지방세 상담 안내 등의 편의제공을 위해 모든 관련 세무 담당자와 팀장이 납세자와 함께 과세자료확인 공개 및 법규를 검토 하였습니다.

◎세무조사시 사전 통지 및 결과 통지를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 세무 조사는 7일 이전에 사전 통지하고, 결과는 세무조사 완료후 15일 내에 통지하겠습니다.

- 세무조사 결과에 의거 추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전 과세 예고 를 실시 하여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 등의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납세자의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을 100% 보장하겠습니다.

- 지방세 부과징수를 목적으로 습득한 자료에 대하여 타용도 사용을 절대 배제하며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과세정보 제공을 하지 않겠습니다.

2. 주민편의 지방세정 적극 실천

◎지방세에 대하여 on-line 입금 제도를 실시하겠습니다.

- 시급한 증명 발급이나 원거리 거주자 등을 위해 on-line 납부방법을 실시하여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 on-line 송금된 지방세는 납부 후 즉시 영수증을 우편 발송하여 투명한 세정을..... 실천하겠습니다.

◎지방세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 지방세 관련 각종 법규 및 조례, 규칙의 신설·개정이 있을 경우 '중구 소식' 지에 게재하고 민원실 고정란을 설치하여 홍보를 강화 하였습니다.

- 지방세 정기분 납기 도래시에는 '중구 소식' 지, 현수막, 입간판, 입간지 등을 이용하여 홍보함으로써 구민과 함께 하는 열린 지방 세정 을 이룩하겠습니다

◎지방세 고지서 송달율을 98%이상으로 높여겠습니다.

- 지방세 부과시 정확한 주소 입력과 조회를 통하여 고지서가 정확하게 납세자에게 도달될 수 있도록 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 주소 변동 등의 사유로 고지서를 미 수령하였거나 의문이 있을 경우 담당자로 하여금 즉시 재발송 등 민원사항에 부응하겠습니다.

- 고지서에는 담당 부서와 담당자의 성명 전화번호를 명기하여 책임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연 4회 이상 업무 교육 실시 및 참여로 업무능력을 배가하겠습니다

- 지방세법 및 각종 사례집 연구를 통해 법령을 해석하고 지방세의 전문성을 높여 정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겠습니다.

- 지방세에 대한 각종 교육에 참석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한 업무능력을 습득하여 민원 업무에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 타 자치단체의 우수한 사례는 담당 공무원의 출장을 실시 적극 도입 하여 수렴하겠습니다.

◎지방세 부과 징수에 정확성을 기하겠습니다

- 지속적인 현장 확인과 출장을 통하여 탈루· 은닉세원의 발굴과 과세누락을 방지하여 공평과세 실현과 세수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과세 대상의 멸실 여부 등의 조사로 현안과세에 충실하겠습니다

◎지방세 과오납 발생시 납세 의무자의 주소 및 연락처를 신속히 파악하여 7일 이내에 계좌 입금함으로써 납세자의 신뢰증진과 권익 보호에 노력하고 환부금은 납부 익일부터 1일 10000분의 2 의 이자를 포함하여 환부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3. 구민이 쉽게찾는 세무민원실 정착

◎모든 직원의 가슴에 공무원증을 패용하여 소속과 성명을 명확히 밝히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출입구에 직원 안내도를 비치하여 담당 공무원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담당 직원위치, 전화번호, 담당업무를 명기하여 부착함으로써 누구나 쉽게 담당자와 상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담당 공무원의 중식시간 교대 근무제를 철저히 이행하여 민원인의 기다림을 방지하겠습니다

- 전 직원의 지속적인 업무 능력 향상과 중식 시간에도 업무의 공백이 없도록 철저한 교대근무를 실시하고 부득이 담당자가 필요한 경우 메모하여 처리결과를 전화 또는 우편으로 3일 이내 답변 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친절한 자세로 민원 상담에 응하겠습니다

- 전화 응대시 친절하고 상냥한 목소리로 소속과 성명을 밝히며 세정 업무를 상담하고 타부서와 연관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의 협조를 받아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매주 직원의 친절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 세무행정이 민원인에게 부담을 주는 행정임을 인식하고 매주 금요일을 친절 교육 시간으로 편성하여 모범적인 행동으로 민원을 상담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 민원 처리과정에서 태도 불손한 직원이 있을 경우 부서장의 강력한 주의 조치와 직원 상호간 교육을 실시하여 시정되도록 하고, 시정 조치 사항을 민원인에게 발송하여 친절도 향상과 신뢰증진에 노력 하겠습니다.

4. 민원 처리기간 단축

◎지방세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겠습니다.

- 민원서류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민원서류 우선 선람제를 실시하겠습니다.

- 일반민원의 경우 법정 기일(7일) 보다 3일 단축하고, 이의신청 민원은 법정 기일(60일) 보다 30일 단축하여 처리함으로써 납세자의 알권리를 신속히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 민원 처리기간이 길어질 경우(일반민원 5일 초과, 이의신청 31일 초과시)전화 또는 공문서로 중간 처리과정을 통지하여 민원인의 궁금증을 해소하겠습니다.

◎지방세 제증명은 30분 내에 발급하여 드리겠습니다.

- 지방세 제증명 발급 청구는 담당 공무원 부재시 대직자를 배치하여 민원 대기 시간을 방지하고, 기타서류의 확인 등으로 처리시간이 30분을 경과할 경우 FAX나 빠른 우편을 통하여 발급해 드리겠습니다.

◎민원 1회 방문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 지방세 관련 각종 방문 민원의 경우 즉석에서 과세자료의 수정 등 시정 조치하고 처리 과정을.....공개하여 동일 건에 대한 민원 재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5일 초과민원 : 전화를 통한 통지(처리 완료전)

• 31일 초과 민원 : 초과일로부터 1주일 이내 전화 또는 공문발송

5. 납세자의 다양한 의견 수렴

◎매년 조세의 날(3월 3일) 행사시 지방세정 발전에 기여한 성실납세자를 적극 추천하여 표창하고,각종 부가 혜택 (1년간 공용 주차장 주차 요금 면제 등)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지방세 모범 납세자와 간담회를 실시 지방 세정 발전에 적극 기여한 성실 납세자에게 감사패 전달 등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겠습니다.

◎간담회 및 각종 회의에서 표출되는 납세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지방세정 발전에 적극 반영하고 반영 여부를 통지함은 물론 반영이 어려운 경우는 사유를 설명하여 드리겠으며, 법령의 개정이 요구되는 사항은 상급기관에 건의하여 납세자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겠습니다.

◎모든 납세자에게 구청장 서한문을 발송 지방세 사용용도를 안내하여 납세자의 알 권리 충족과 투명한 지방 세정을 실천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납세자에게 약속한 세무행정 서비스 현장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고객 소리함 설치, 시민불편요소 신고제 운영 등으로 서비스의 만족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 개별 통지 및 중구 소식지에 연 2 회이상 게재하여 서비스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납세자에게 바라는 사항

지방세에 관한 모든 문의, 건의 사항에 대하여 세무과, 출장소, 동사무소에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 제안이나 반상회, 기타 방법 등을 통하여 지방 세정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지방 세정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및 거주지 변경사항 발생 시 정정하여 정확한 부과 고지가 될 수 있도록 세무과에 즉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처리 과정에서 불친절한 세무공무원이 있을 경우 질책과 격려로 세무민원 수행에 항상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환부 대상자께서는 소액의 경우라도 환급권리를 포기하지 마시고 적극 청구하여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처리과정에서 부조리(금품, 향응요구) 사례가 있을 경우 세무과장(760-7234) 또는 감사부서(760-7080)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국제공항

‘제2의 비상’

동북아 최고 허브공항 향해 2단계 건설사업 박차



인천국제공항이 동북아의 최고 허브공항을 향해 2004년 다시 한번 힘차게 ‘비상’한다.

지금 세계는 하루 생활권에 접어들었고 여기에 맞춰 항공 수요가 매년 크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중국 푸둥공항, 일본 간사이공항, 홍콩 첵랍콕공항, 싱가포르 창이공항 등은 동북아 허브공항 자리를 선점하려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인천공항도 여기서 예외일 수 없다.

이들 공항은 물론, 주변의 다른 경쟁공항들도 허브 우위를 잡하기 위해 본격적인 시설확충에 나서고 있다. 인천공항은 이에 충분한 시설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2단계 건설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올해부터 본격 추진될 예정인 인천국제공항 2단계 건설사업은 매립으로 시작된다.

영종도와 용유도의 갯벌 1천700만평을 매립해 건설한 인천공항은 세계 최고·최첨단의 시설을 자랑한다. 5조6천3백23억원을 들여 지난 92년 착공, 10년간의 대역사(大役事)를 거쳐 개항한 인천공항은 항공기 연 24만회 운항에 여객 3천만명, 화물 270만의 처리능력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항공기와 이용객 등이 부쩍 늘어나면서 이미 계류장이 포화상태에 달해 2단계 확장을 서두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인천공항 2단계 건설공사는 지난 2002년 2월 이미 부지조성 설계를 시작했으며 올해, 본격적으로 본공사를 시작한다.

오는 2008년까지 모두 4조7천32억원이 투입되는 2단계 공사는 250만평의 부지위에 초대형 항공기의 이·착륙이 가능한 4천m급 활주로 1본, 항공기 56대가 동시에 주기할 수 있는 33만평 규모의 계류장, 항공기 30대의 접현이 가능한 여객탑승동(4만8천평) 건설 등이 주요 내용이다.

여기에 민자 3천8백68억원을 들여 화물터미널 3만평과 국제업무지역 10만평, 관세자유지역 30만평도 함께 개발된다.

특히, 4천m 규모의 활주로는 세계 최대 항공기 제작 업체인 보잉사와 에어버스가 지난 97년부터 개발 중인 길이 80m정도의 차세대 항공기가 2006년께부터 상업운전을 시작할 것에 대비해 건설되는 것이다. 여객터미널과 탑승동을 연결할 무인자동열차인 IAT(Intra

Airport Transit)시스템도 국내 최초로 도입, 운영된다.

2단계 건설사업이 마무리되면 인천공항은 명실공히 여객과 물류처리에 있어 동북아 중추공항으로서의 입지를 견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설능력은 항공기 운항이 연 41만회로 늘어나고 여객은 4천4백만명, 화물은 450만t으로 처리능력이 각각 증가하며, 이는 세계의 우수한 공항 중 여객처리는 10위권, 아시아에서는 2위로 도약하는 수준이다. 화물처리도 세계 3위권, 아시아 2위권으로 부상한다.

이와함께 2단계 공사는 인천지역의 경기활성화는 물론 국내 건설경기 진작에도 많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직·간접 고용혜택을 누리는 사람이 하루 4만명에 달하며 건설단계에서만 7조원의 부가가치가 창출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관세자유지역이 오는 2005년부터 운영되면 연간 3천700여명의 고용이 창출되고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화물 물동량이 약 21% 늘어나 연간 6억5천만달러의 수출효과도 기대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단계 건설사업의 목표를 국내 최고가 아닌 세계 최고로 상정한 상태다.

인천국제공항 올해 1조2천500억원 사업발주

활주로 부지조성, 각종 부대시설물 발주 등 모두 12건

인천국제공항이 올해 공항 2단계 건설에 1조2천500억원 규모의 사업이 발주될 것으로 전망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최근 “올해는 2단계 건설 공사가 본격화되면서 활주로 부지조성과 함께 건축물, 각종 부대시설물 발주 규모가 12건, 1조2천540억여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지역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3월에는 1천100억원 규모의 탑승동 A, B 계류장지역의 시설공사가 발주되며 2분기에는 IAT(Intra Airport Transit·자동여객수송시스템), BHS(수하물처리시스템) 터널구조물공

사 1천억원이 각각 발주한다. 또 화물터미널 북측지역 시설공사 400억원, 관세자유지역내 지원시설(통제시설) 60억원, 항공동화 구축사업 850억원이 각각 발주된다.

3분기에는 모두 6건이 발주되는데 2단계 탑승동 건물 등 건축시설건설공사 5천억원, 수하물처리시설사업 3천700억원, 에어사이드 전기설비공사 380억원, 통합계측관리용역 20억원, 수변전시시설사업 8억5천만원, 전력공급시설공사 20억원이, 4분기에도 화물터미널 확장지역 경비보안시스템 구축사업에 1억4천만원 등이다.

공항공사는 올해 착수될 2단계 공사는 건설경기 활성화

와 고용창출을 위해 가급적 발주시기를 앞당길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 발주한 활주로 부지조성공사 등 토목공사에 지역 업체들의 공동의무 도급 참여비율을 5~10%이상 참여시킨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지역 업체에 적용할 예정이어서 고용창출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한편, 지난해 제3활주로 부지조성공사와 화물터미널 확장지역 토목시설공사, PC 구조물 현장제작장 설치 남·북측 도로 주배수로 공사 등 17건에 8천837억여원을 발주해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중국인거리에 대형문화공간 들어선다

차이나타운에
‘문화관광정보센터’ 조성 첫 삽



인천시 중구 선린동 차이나타운의 메인시설인 ‘문화관광정보센터’가 첫 삽을 떴다.

중구 항동 1가 1의2 월미공업사 부지 2천377.9 평방미터에 들어서는 문화관광정보센터는 지하 1층, 지상 4층(4층은 옥탑) 규모의 최첨단 건물로 지어진다.

문화관광정보센터는 한·중 양국의 문화 정보 교류 증진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하게 되며, 중국 관광객 유치와 편의 증진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구는 지난 달 기존 건물들을 말끔히 철거했으며 터파기와 기초공사에 들어가 오는 10월 ‘한·중국의 날’ 기념일에 맞춰 준공할 예정이다.

부지매입비 30억6천600만원, 시설비 42억3천4백만원 등 모두 73억원이 투입되는 문화관광정보센터에는 우선 중국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연시설과 전시실이 들어선다.

공연장에서 중국의 경극을 비롯해 우리나라의 전통 연극, 마임 등이 공연돼 관광객들을 기쁘게 해주는 것은 물론 자연스런 한·중 문화교류의 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시실 역시 중국에서 활발한 판화예술을 비롯해 중국의 미술과 우리나라의 미술품이 함께 혹은 따로 전시되며 관람객들의 눈을 즐겁게 해 줄 예정이다.

이와 함께 중국과의 관광교류 등을 협의하기 위한 회의시설(4층)과 환전소와 승선권 매표소(3층)가 갖춰

져 중국관광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단체관광객 유치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중국 관광객들이 마음껏 문화상품을 접한 뒤, 교통편을 위해 연안여객 터미널까지 가지 않고도 한 곳에서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1~2층에는 또 소형 승용차와 대형 버스가 주차할 수 있는 공영 주차장 100여면도 함께 마련된다.

이같은 문화관광정보센터의 건립은 차이나타운의 숙원사업인 구도심권 화교촌 이미지를 새롭게 탈바꿈시킬 것으로 보인다.

산뜻한 새 모습으로 부활한 차이나타운의 이미지는 패루 등 중국 내음이 물씬 나는 설치물과 고풍스런 가옥 등과 어우러져 다채로운 얼굴의 차이나타운을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중구는 앞서 지난해 1월 부지매입에 이어 기본설계안 토의 및 보고회를 갖고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했다.

이후 아스콘 도로포장과 송전선로 지하화 등 차이나타운을 명실공히 전국 최고의 중국인 거리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구 관계자는 “문화관광정보센터가 건립되면 한국과 중국의 문화교류 증진은 물론 단체관광 유치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2004년도 정월대보름 맞이 윷놀이 대회

우리 고유의 전통 명절인 정월대보름을 맞아 민속놀이인 첩사(윷놀이)대회를 지난 2월5일부터 8일까지(4일간) 북성동을 시작으로 10개동 사무소에서 주민화합과 결속을 다지고 구민의 안녕과 번영, 구정발전을 기원했다.



◀북성동



▲동인천동



▲도원동



▲신포동



▲신흥동

품 질 의 의 료 서 비 스 와 주 민 문 화 충 족 종합복지관 건립

- 위 치 : 중구 전동 2-1
- 대지면적 : 6,013.3㎡(1,820평)
- 규 모 : 지하 1층, 지상 5층
- 연 면 적 : 7,134㎡(2,160평)
- 용 도 : 보건소, 동인천동사무소, 문화회관
- 소요예산 : 11,359,296천원
- 준공예정 : 2005년 11월중

2004년도 적십자회비모금 안내

■모금기간

- 가. 집중모금 : 2004. 1. 20 ~ 2. 29(41일간)
- 나. 연중모금 : 2004. 1. 1 ~ 12. 31(연 간)

■적십자회비 납부방법

- 지로용지를 가지고 우체국, 금융기관에 납부
- 인터넷 지로납부 : www.giro.or.kr
- 금융기관에 설치된 무인공과금수납기 이용
- 금융기관 창구에 비치된 지로 A장표 이용
- 직접송금 : 우리은행 756-033290-13-081, 한미은행 467-00458-248, 농협 528-17-001771

우리 동네 이야기 **신흥동**

도시교통 산업기능 요청지

수인곡물 · 신흥시장 등 역사깊은 시장 자리해 / 축항로 육교설치, 대형트럭 불법 주 · 정차 단속시급

신흥동은 공유수면 매립으로 조성된 신시가지이다. 인천항과 가까이 있는 산업지역으로 도시교통 산업기능의 요청지이다.

신흥동의 자랑거리는 유서 깊은 '수인곡물시장'과 '신흥시장' 등 재래시장이다. 이들 재래시장은 수십 년간 한 자리를 지켜오며 지역 주민들의 의식주를 해결해주고 있다.

신흥동 3가 7 수인곡물시장엔 고추짬는집 7곳, 곡물집 30곳, 기름집 10곳을 합해 모두 47개의 가게가 들어서 있다. '미숫가루' '보조식품' '고춧가루' '참기름' 등등 상점 이름 옆에는 판매물품들을 친절

히 소개한다. 가게들은 사이좋게 다닥다닥 붙어서 100여m에 이르는 길다란 곡물거리를 형성하고 있다. 수인선 종점이 있던 이 곳은 처음 인천 경기지역 농부들이 자신이 재배한 농산품을 가져와 직거래를 하던 곳이다. 그러나 수인선이 오가고 종점이 생기면서, 목조건물들이 하나 둘 씩 들어섰고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됐다. 이곳 상인들은 수십년동안 한 자리를 지켜온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렇지 않으면, 대를 이어 장사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40여년 역사를 지내는 신흥시장은 지난해 아케이드를 설치,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났다. 75여개 상점들은 사이좋게 자

리를 잡고 오전 7시부터 저녁 11시까지 분주히 움직인다.

이들 시장들은 대형할인점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단골들과 신뢰성 높은 상품으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벌이고 있다.

인천항에 붙어 있는 관계로 신흥동의 현안은 교통과 관련한 것이 많다.

우선 신흥동 3가 신선초교 인근 경인고속도로 입구 진입로측에 대형차량이 통행이 빈번한데도 육교가 없어 아이들이 통학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신흥아파트와 향운아파트 주민 자녀들의 경우 이때문에 집 건너편 신선초교로 다니

지 못하고 버스를 타고 가야 하는 신광초등학교로 통학하는 실정이라서 주민들은 축항로 육교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향운아파트 앞 도로 불법주차도 골칫거리이다. 향운아파트 주변은 소음, 분진 등 환경오염과 공해로 주민불편이 극심한데다 인근 도로마저 대형 화물차량들이 불법으로 점거해 통행불편은 물론 교통사고 위험마저 상존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주민들은 이와 함께 신흥공구단지 앞 상습침수지를 공원으로 만들어주고 구수인역 철로를 폐쇄, 이전하기를 원하고 있다.

박영찬 신흥동 주민자치위원회 회장 인터뷰

"우리 동 발전 건인차지요"



에어로빅, 중국어, 채색화교실 등

운영 프로그램 '다채'



"우리는 주민자치위원을 공개모집합니다. 자진해서 나서는 사람들이니 일을 열심히 할 수밖에 없지요."

박영찬(75) 신흥동 주민자치위원회 회장은 위원회 활동을 소개해 달라는 말에 위원들 자랑부터 시작한다. 모두 26명으로 구성된 신흥주민자치위원회는 누가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닌 "서로 하겠다"며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대부분 자발적으로 나선 사람들이다. 이들은 동의 전반적인 운영에 직간접으로 관여해 동의 발전을 주도하고 있다.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과 전반적인 부대시설 관리, 뭐 이것 저것 다 하지요."

박 회장은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이 워낙 광범위해 무엇을 중점적으로 꼭 짚어서 말하기 어렵다고 한다.

인터넷 정보실, 휴게실, 취미교실방, 탕비실, 주민대화방, 다목적실, 동아리방 등 신흥동 주민자치센터에는 작지만 없는 게 없을 정도로 고른 시설을 갖추고 있다.

이 '작지만 큰' 시설에서는 에어로

빅 교실, 중국어 교실, 채색화 교실, 인터넷 정보방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에어로빅은 전문 강사가 중국어는 중국교포 3세가 가르칩니다. 채색화 교실도 전문미술강사가 강의하고 있지요."

박 회장은 에어로빅은 요즘 불고 있는 '몸짱' 열풍에 부응하는 프로그램이고 중국어는 중구를 널리 홍보할 수 있는 도우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자랑한다. 이같은 프로그램 운영은 지역 자생단체와 밀접한 연관을 맺

고 진행중이라고.

"앞으로는 운영, 기획, 자문과 함께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봉사서비스 활동과 지역복지, 사회진흥 프로그램과 주부, 청소년, 노인 등 모든 계층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는 역사기행, 박물관 관람, 우리 예절 익히기, 스포츠 · 음악회 · 전시회 등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개설해 모든 동민이 찾는 주민자치위원회를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 시냇가’인 한 국보급 극장으로 ‘빅박스’

애관극장, 최첨단 5개관 갖춘 멀티플렉스로 재개관

‘애관극장’이 ‘국보급’ 극장이라는데 이의를 달 사람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10년의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한 채 고색창연한 광채를 내뿜고 있는 애관극장은 ‘인천의 자랑’이자 ‘한국의 보물’임에 틀림없다. 그런 애관극장이 지난달 17일 멀티플렉스로 새롭게 태어났다. 쾌적한 공간속의 안락한 좌석, 최신 디지털 음향과 영상 시스템을 갖춘 5개의 상영관으로 재 개관한 것이다. 가로 12m, 세로 5m의 전국에서 가장 큰 스크린을 갖춘 1관과, 새롭게 지은 4개관을 한마디로 말하면 ‘전통’과 ‘최첨단’의 공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관람료는 일반 7천원보다 1천원이나 싼 6천원이다.

애관극장은 이와 함께 커피숍, 아이스크림가게, 오락실 등 다양한 먹거리와 놀거리를 논스톱으로 즐길 수 있는 안락한 편의시설도 갖췄다. 아울러 새로운 건물에 주차장을 마련했으며 주변 신신예식장과 경동주차장에까지 주차장을 확장해 차를 주차시킬 수 있도록 했다. 애관극장은 재개관 기념으로 전철패스와 초대권, 팝콘 나눠주기 행사를 가지며 재개관의 기쁨을 알렸다.

애관극장은 앞으로 최고작 상영과 함께 ‘미개봉작 사회’나 ‘거장 감독의 작품전’ ‘예술영화 상영’ 등 다채로운 기획상영과 이벤트를 통해 일반 극장과는 차별화한 운영을 해나갈 계획이다.

애관극장이 상영관을 5개관으로 확대한 것은 시대조류에 부응했다기 보다는 ‘전국 최고의 극장’, ‘동인천 상권 부흥의 견인차’라는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다. 과거 이 일대 상권은 사실 애관극장이 다 먹여 살렸는데

도 과언이 아니다. 사람들은 극장에 입장하기 위해 지금의 기독교병원까지 줄을 서야 했고, 그 사람들은 애관극장 주변에서 밥을 먹고 차를 마셨다. 전국 스코어(관객 수)를 애관극장으로 추산할 정도였다. 그러던 것이 IMF 이후 경기가 급속히 얼어붙고 멀티플렉스가 증가하면서 관객들의 발길이 점점 끊어지기 시작했다. 애관극장의 역사는 1800년대 후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애관극장의 전신인 ‘협률사’(協律舍)는 재판소 구성법을 포함해 행정관과 사법권을 분리하는 율미개혁이 단행되던 1895년 세워졌다. 우연의 일치인 지 모르지만 이 해는 영화가 탄생한 시기이다. 첫 사설극장이기도 한 협률사를 만든 이는 ‘총각옛장수’에서 인천갑부로 등장한 부산출신의 정치국이란 사람이었다. 이 곳에서 ‘박첨지’ ‘흥부놀부’ 등 토속적인 제목의 인형극을 비롯 창극이나 신파극 등이 공연됐다. 줄타기와 땅재주, 승무 등 수준급 공연도 종종 펼쳐지기도 했다.

1913년 11월 국내 극단의 원조로 일컬어지는 임성구의 혁신단 단원들이 이 곳에서 공연한 신파극 ‘육혈포 강도’는 인천 신연극의 효시로 기록된다.

애관극장이란 이름은 1915년 협률사를 떠맡은 홍사헌은 지은 이름. 이 때부터 비로소 연극과 영화를 주로 올리는 상설관의 면모를 갖추게 된다.

인천의 언론인 고일 선생이 지은 ‘인천석금(仁川昔今)’에 따르면 해방후엔 포스터나 신문광고, 가두 포스터 등 여러 매체를 통해 홍보를 했지만 일제 때 애관극장에서 큰 북 작은 북을 지게에 짊어진 극장전속 고용인



이 조그만한 쇠북까지 동원, 박자에 맞춰 두들기고 다니며 공연 프로그램을 안내했다.

6·25동란중 소실됐다 다시 문을 연 애관극장은 전쟁 후 만남의 장소는 물론 강연회나 연주회 등도 열었다. 세계적 음악가인 번스타인의 피아노 연주회가 열렸고, 역대 최고의 무용수로 이름을 날리던 최승희도 아름다운 춤사위 자취를 이곳에 남기기도 했다고 전해진다. 애관극장은 1960년 9월 재건축된 뒤 지금에 이르고 있다.

2004년, 애관극장은 인천시민들로부터 받은 사랑을 두 배로 갚아줄 생각이다. 애관극장이 더 많은 사랑을 나눠줄 수 있도록 오늘 가족들의 손을 잡고, 연인의 손을 잡고 쾌적한 극장안으로 들어가 보는 것은 어떨까.

맛 집 부엔부

‘맛이 부자’인 정통중국 레스토랑

사천탕수육, 누룽지탕 등 중국 본토의 맛 그대로



‘富亦富’(부엔부)란, “많이 먹을 수록 부자가 된다.”쯤으로 해석할 수 있다.

화교 방승부씨가 운영하는 ‘부엔부’(중구 북성동 7의9)는 상호와 꼭 맛을 만큼 ‘맛이 부자’인 정통 중국 요리집이다.

고급 해물만을 엄선해 특수 소스를 뿌린 ‘전가복’, 부드럽고 담백해서 노인과 어린이가 좋아하는 ‘누룽

지탕’, 왕새우를 튀겨 새콤달콤하게 버무린 ‘칠리 새우’에서부터 중국식 만두국인 ‘혼돈탕’, 매콤한 탕수육인 ‘사천탕수육’ 등등… 부엔부에는 최고급에서 가장 대중적인 요리까지 산해진미를 골고루 갖추고 있다.

특품냉채, 상어지느러미, 오룡해삼, 송이전복, 사천식 쇠고기안심이 고루 나오는 웨비리코스는 물론, 정통중국요리집이 그렇듯이 기본 메뉴이다. 면, 후식류, 냉채류, 탕류, 돼지고기류, 쇠고기류, 닭고기류, 잡종류 등 100여 가지가 넘는 맛깔스런 음식이 손님들을 기다리고 있다.



가장 눈길이 가는 음식은 중국식 고추장인 ‘두반장’을 원료로 만든 ‘사천짜장’과 ‘사천탕수육’으로 단순한 고춧가루나 고추기름, 고추장을 쓰지 않고 오리지널 두반장을 사용해 진품의 맛을 느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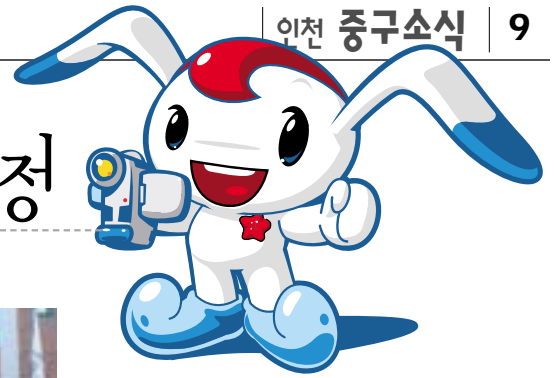
좋은 재료가 좋은 요리를 만드는 법. 부엔부는 해산물과 야채가 많이 들어가는 중국요리의 특성상 ‘신선도’에 특히 신경을 쓴다. “재료값 아끼려면 음식점 할 생각 말아야지요.”

부엔부는 맛 뿐이 아니라 분위기가 끝내준다. 남향으로 햇빛이 잘 드는 2층에 마련된 6개의 방엔 가족끼리, 혹은 직장인들의 회식자리로 최고로 느껴질 정도로 아늑하고 깨끗하다. 유리벽에 하얀 원탁, 까만 타일바닥이 고급스럽고 모던한 분위기를 풍기며 유럽의 전통깊은 레스토랑에 있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이다.

음식을 먹을 때마다 5%씩 적립을 해주며 일정한 금액이 모이면 금액만큼의 요리를 공짜로 먹을 수 있다. ☎ 765-7787 www.bunbu.co.tv



포토구경



설날맞이 저소득 가정 및 쪽방쉼터 방문위로

우리구는 지난 1월20일 2004년 갑신년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날을 맞아 중구청장, 보건복지과장, 관련공무원 등이 동인천일대 저소득 독거노인들이 거주하는 쪽방 밀집지역과 북성동 2·3통 저소득 세대를 방문하여 위로했다.



중구 율목동 경로당 준공식

우리구는 지난 2월5일 중구청장을 비롯 구 관계 공무원, 대한노인회 중구지회 회원, 율목동 주민자치위원, 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율목동 경로당 준공식을 가졌다.

구청장 동 연두방문

우리구에서는 중구청장을 비롯 총무국장, 도시국장, 간부공무원, 주민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월17일 신포동 방문을 시작으로 5일간 2004년도 동 주요 업무계획 및 현안사항을 청취하는 구민과 대화를 가졌다.



도원동 경로당 겨울방학 한자교실 수료식

중구 도원동 경로당(노인회장 박인규)은 지난 1월28일 주민자치센터에서 중구청장, 중구의회의장, 구의원, 구의원, 학생 등 285명이 참석한 가운데 겨울방학 한자교실 수료식을 거행했다.



2004년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

지난 2월5일 중구청장은 대한적십자 중구지회에 2004년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했다.



“갱년기여성 건강관리사업” 학술연구 발표회

중구보건소에서는 지난 1월27일 중구청장을 비롯 관계공무원, 유관기관 임직원,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성의 건강증진에 최대로 효과적인 사업방안 구상 및 갱년기여성 건강증진 모형 개발”이라는 주제로 갱년기여성 건강관리사업 학술연구 발표회를 열었다.

★ 대체의학 ★

피로회복, 식욕증진에

매실

매실은 살균, 정장작용이 강해 전염병과 식중독일 때는 매실장아찌를 계속 먹으면 효과가 뛰어나며, 여행지에서 음료수에 채하기 쉬운 사람도 매실장아찌를 먹어두면 곤란을 피할 수 있다.

이것은 세균의 발생을 억제하고 피로를 회복시킨다. 또 여름에 먹으면 세균 예방과 전염병 예방도 된다. 아침에 매실장아찌를 먹어두면 하루의 정장을 이롭게 하며, 장내에 있는 노폐물을 감소시키고 이상발효 독소를 제거하기 때문에 전신의 기능을 튼튼하게 해준다.

- 피로회복, 혈액정화 - 매실에는 구연산이 많이 함유되어 있으며, 이 구연산은 포도당의 효력을 10배정도 늘리는 효능이 있어서 당질의 소화흡수를 돕고 보다 많은 매실엑기스를 만들어낸다. 포도산 등의 파로틴도 중화하며 혈액정화 작용을 한다. 매실의 구연산, 피크린산은 알칼리성을 높여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간장을 보호해 준다.
- 식욕증진, 위장장애 - 매실장아찌는 타액선, 위액선을 자극해서 소화액을 분비하며 전분질의 소화흡수를 정상적으로 만든다. 입덧, 숙취 등 식욕이 없을 때에도 매실장아찌를 먹으면 식욕이 난다. 또 매실에 함유된 카테킨산은 장의 연동운동을 활발히 하여 장내의 유해균을 살균하므로 단백질의 분해를 돕고 체력도 강하게 한다. 또 칼슘의 흡수도 돕고, 장내의 유해균을 기르며 유해균을 죽이는 효능도 강하므로 정장을 위해서도 매일 매실장아찌를 먹으면 좋다.

■매실즙

푸른 매실에 소금을 넣고 며칠 두면 투명한 액체가 우러난다. 이 매실즙을 한 숟갈 정도 뜨거운 물에 부어 마시면 많은 땀이 나온다. 하루 3회, 2~3일 복용하면 감기에 좋다.

■매실 주스

깨끗이 닦은 푸른 매실을 같은 분량의 설탕과 함께 입구가 넓은 병에 담는다. 10일 후에 즙이 다 우러나오면 떠오른 매실은 전부 건져내고, 남은 매실즙을 가제로 한번 걸른다. 그것을 병에 넣어 보관하고 설사가 나거나 배가 아플 때 한숟갈 씹 먹는다.

- 구토, 설사 - 소금에 절인 매실을 삶아 천천히 마거나, 매실 초를 한 숟갈씩 먹으면 효과가 있다.
- 배멀미, 차멀미 - 매실을 입에 물고 있거나 매실을 직접 배꼽에 붙인다.
- 구내염 - 매실을 껌게 태워 가루로 만들어 입에 물고 있다.
- 타박상 - 계란 흰자와와 밀가루를 혼합하고, 거기에 매실초를 넣으면서 부드러울 정도로 반죽한다. 그리고 이것을 헝겊에 펴서 환부에 바른다.
- 신경통, 류머티스 - 매실을 소금에 절여 20~30개를 술에 넣고 물 3~4홉으로 약한 불에서 1시간 정도 끓인다. 이 즙액을 수건에 싸서 뜨거운 때 환부에 찜질한다.
- 담석, 결석 - 뜨겁게 달인 엽차에 큰 매실 한 개를 넣어 한 컵 마신다. 또는 하루 2~3회, 한 숟갈씩 매실엑스를 먹으면 효과가 있다.
- 만성 이질, 대장염 - 잎을 그늘에 말려 두었다가 끓여 차 마시듯 마신다.

■자료제공 : 삼원기(자연치유요법 전문가)

이 달의 수산물

홍합



홍합은 단백질, 지질 및 탄수화물
의 함량이 많고 각종 스테롤류를 함유하고 있어 영양 및 생리기능적으로 우수하다.
홍합의 제철은 알을 낳기 전인 늦겨울부터 봄까지(2월~4월)이다.

■ 추천 도서 ■ ■ ■ ■ ■

조창인 장편소설 길



책소개 _ “인생은 마술과도 같아서 비밀로 가득하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만이 그 비밀을 풀 수 있어. 그 비밀을 풀어가다 보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도 저절로 알게 될 거야.”

『길』은 밀리언셀러를 기록한『가시고기』의 작가 조창인이 『등대지기』에 이어 2년 만에 발표하는 소설이다. 그 동안 두 편의 소설이 각기 부성애와 모성애를 다룬 것이었다면, 이 소설은 인간의 삶, 인생 전체를 따뜻하게 바라보는 작가의 시선이 무엇보다 빛을 발한다. 가난과 외로움, 장애마저 가진 어린 소년이 마침내 희망의 씨앗을 찾아내기까지 먼 여정을 그리는 이 작품은 동화처럼 아름다운 동시에 철학적인 깊이마저 담고 있다.

흔히 산다는 것은 머나먼 길을 떠나는 것이며, 여행은 인생의 축소판이라고 말한다. 어린 여동생의 손을 잡고 엄마를 찾아 떠난 소년의 여행 길은 멀고 험난하기만 하다. 그 길 위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은 오누이에게 힘이 되기도 하고 뜻밖의 고통 속으로 끌어들이기도 한다. 아이들은 때때로 길을 잃기도 하고, 낯선 길에는 온갖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두 아이를 위협한다. 게다가 인생이 그러하듯 먼 길을 걸어 마침내 목표에 도달했을 때 두 오누이를 기다리는 것은 따뜻한 사랑과 희망보다는 오히려 슬픔과 절망에 가깝다. 그러나 그 속에서 희망을 발견해내는 것은 결국 자신의 몫이라고 작가는 이야기한다.

‘사람은 혼자서도 살 수 있나요?’라는 소년의 화두는 이 책의 주제를 집약하고 있다. 긴 여행 끝에 소년이 내뿜는 한마디 독백을 통해 독자는 소년의 깨달음, 즉 작가의 메시지를 알 수 있게 된다. 과연 삶이란 무엇이고 희망은, 믿음은 무엇인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해주는 소설이다.

이달의 영어회화표현

Make good on your promise. 약속을 지키세요.

Make a promise는 ‘약속을 하다’ 이고, make good은 ‘부족한 것을 보충하다, 약속을 이행하다’ 라는 뜻이므로, make good on one’s promise는 ‘자기가 한 약속을 잘 지키다’라는 의미가 된다. Make, go, come, do, get, have 등은 영어에서 아주 많이 사용되는 동사이므로 새로운 표현이 나올 때마다 꼭 기억하도록 하자.

- A : Hello, this is Marjorie speaking.
B : Hey, Marj! Tom here. How about that dinner we talked about?
A : I can't believe it! You said you were going to treat me to dinner but I didn't think you'd remember.
B : I always make good on my promises

- A : 여보세요, 마저리입니다.
B : 안녕, 마지! 나 탐이야. 일전에 얘기했던 저녁약속은 언제로 할까?
A : 세상에! 네가 저녁을 사겠다고는 했지만 진짜로 그 약속을 기억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는데.
B : 난 항상 약속을 지킨다구.

〈More Tips〉

- They're good for nothing. 그들은 아무런 도움이 안되요.
- It's no good doing it. 그렇게 해봤자 소용없어요.

이달의 중국어회화표현

明天有什么计划? 내일 무슨 계획 있으세요?

- A: 明天有什么计划? (밍티엔 요 선머 지화 마?)
내일 무슨 계획 있으세요?
B: 没有 (매이요.)
없습니다.
A: 那么, 我们一起去看电影, 好吗?
(나머, 위먼 이치 취 칸 띠엔 잉 하오마?)
그러면, 우리 함께 영화 보러 가는게 어떨습니까?
B: 好. (하오.)
좋습니다.

〈More Tips〉

- 明天(밍티엔) : 내일
- 计划(지화) : 계획하다.
- 电影(띠엔잉) : 영화

■자료제공 : T.I.G program 개발진(514-0038)

이달의 일본어회화표현

到着(とうちゃく)は予定(よてい)どおり? 도착은 예정대로 인가요?

본문에서의 ‘ごめんください’는 남의 집을 방문할 때 하는 인사말로 ‘계십니까(どなたかいらっしゃいますか)’와 뜻이 같다. 참고로 ‘ごめんください’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의 뜻으로 쓰인다.

- リンリン!! 따릉릉!!
後輩: 先輩(せんぱい), あしたから、よろしくお願(ねが)いします.
후배: 선배님, 내일부터 잘 부탁드립니다.
森: 任(まか)せておいて. 到着(とうちゃく)は予定(よてい)どおり?
모리: (내게) 맡겨둬. 도착은 예정대로야?
後輩: はい. 13時(じゅうさんじ) 20分(にじゅうぶん) ソウル着(ちゃく)のKE705(更(ななまるごびん))です.
후배: 네. 13시20분 서울 도착 KE705편입니다.
森: じゃあ、空港(くうこう)で.
모리: 그럼, 공항에서 (만나).
後輩: わざわざすみません.
후배: 일부러 (오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森: いいって奥(おく)さんにもよろしく.
모리: 괜찮다니까. 부인에게도 안부전해 줘.

〈More Tips〉

- 任(まか)せる : 맡기다
- わざわざ : 특별히, 일부러

"제120회 임시회 개회"

금년들어 처음으로 열린 제120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가 2004년 2월 10일 개회되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및 송월아파트주택 재건축정비계획수립에따른의견제시의건, 인천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중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인천광역시중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중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을 심의하여 『원안 가결』하였다.



영종동 척사대회 참석



조영환 중구의회의장은 지난 2004년 2월 5일 (목) 영종동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으로 개최한 대보름 맞이 영종동 척사대회에 참석하여 인사말을 통하여 주민화합과 침체된 민속놀이가 전승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토지평가위원회 참석



김기성 중구의회의원은 지난 2004년 2월 4일 (수) 14:00 중구청 회의실에서 개최한 토지평가위원회에 참석하여 부의 안전에 대하여 논의하고 공정한 업무추진을 당부하였다.

‘도원동 청소년 예절학교 수료생’ 격려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최무웅 부의장은 2004년 2월 7일 제10회 도원동 청소년 예절학교 수료식에 참석하여 청소년들에게 웃어른을 공경할 줄 알고, 이웃을 배려할 줄 아는 예절 바른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힘껏 노력할 것을 당부하고, 우수 졸업생에게 표창을 수여하였다.

신흥동 척사대회 참석



박길정 중구의회의원은 지난 2004년 2월 17 (토) 11:00 노인복지회관 회의실에서 개최한 정월 대보름 맞이 척사대회에 참석하여 주민들과 함께 흥겨운 시간을 보내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월미산 제천례 봉행식 참석



조영환 중구의회의장을 비롯한 의원일동은 지난 2004년 2월 1일(일) 11:00 월미산에서 중구의 안녕과 발전을 기원하는 2004년 월미산 제천례 봉행의식에 참석하였다.

주민설명회 참석



이성출 중구의회의원은 지난 2004년 2월 13일 (금) 15:00 중구청 회의실에서 개최된 월미도 및 자유공원 주변 지구단위계획 주민설명회에 참석하여 지구단위 계획에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율목동경로당 준공식 참석



임관만 중구의회 의원은 2004년 2월 5일(목) 11:00 율목동 경로당 준공식 행사에 참석하여 경로당에 참석한 주민 및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송월동 척사대회 참석



신병우 중구의회의원은 지난 2004년 2월 6일 (금) 11:00 송월동사무소 다목적홀에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주관한 정월 대보름 맞이 척사대회에 참석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신포동 척사대회 참석



이승언 중구의회의원은 지난 2004년 2월 5일(목) 신포동 자생단체가 주관한 정월 대보름 맞이 척사대회에 참석하여 관계 공무원과 주민들을 격려하고 주민화합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하였다.

주민대책협의회 참석



이태호 중구의회의원은 지난 2004년 1월 27일 (화) 용유동사무소 회의실에서 용유·무의 주민대책협의회 창립총회에 참석하여 참여 주민들과 함께 지역발전을 위한 토론을 가졌다.

❖ 중구문화관광정보센터 전시장 기증물 모집

한중간의 교류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구민에게 중국의 독특한 문화와 다양한 정보 등을 알리고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우리 구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구문화관광정보센터(가칭) 내에 중국관련 상설전시장에 전시할 대상물을 수집하고자 합니다. 풍성한 볼거리와 알찬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전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관심바랍니다.

- **모집기간** : 2004. 2. 27 부터
- **수집대상물** :
 - 중국 관련 모든 자료
 - 인천 중구 북성동에 위치한 차이나타운과 관련된 각종 자료 ex) 사진, (고)서적, 생활용품, 각종 미술품 등
- **모집대상자** : 구민을 포함한 모든 일반인
- **문의전화** : 인천중구청 관광개발과 ☎ 760-7537

❖ 2004년도 고용촉진훈련생 모집

- 2004년도 고용촉진훈련생을 모집합니다.
- **모집기간** : 2004. 1. 26 ~ 3. 11
 - **훈련기간** : 직종별 3 ~ 6개월 과정
 - **훈련개시일** : 2004. 3. 22
 - **훈련비용** : 전액무료(훈련생 교통비 등 수당지급)
 - **훈련대상** : 15명
 - 고용보험 미적용 실업자, 비진학청소년 등 저소득계층
 - **문의전화**

▶ 중구 산업경제과 ☎ 760-7373	▶ 신포동사무소 ☎ 760-7901
▶ 연안동사무소 ☎ 760-7911	▶ 신흥동사무소 ☎ 760-7921
▶ 도원동사무소 ☎ 760-7931	▶ 울목동사무소 ☎ 760-7941
▶ 동인천동사무소 ☎ 760-7951	▶ 북성동사무소 ☎ 760-7961
▶ 송월동사무소 ☎ 760-7971	▶ 영종동사무소 ☎ 760-7981
▶ 용유동사무소 ☎ 760-7991	

❖ 부동산불법중개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 「텔레마케팅 등」불법중개행위자를 적극 신고하여 부동산 거래질서 투명화로 시민의 권리를 보호 합니다.
- **신고대상**
 - 텔레마케팅 직원을 고용한후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무등록중개업자등의 불법행위
 - 중개대상물의 거래상 중요사항에 대한 거짓된 언행으로 소비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행위
 - 미등기 전매 등 불법중개로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 부동산을 일간지 등에 광고하여 비싼 값에 즉시 팔아주겠다고 속여 고액의 광고비를 징수하는 행위
 -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등 문서위조로 남의 땅을 제3자에게 팔아넘기는 행위
 - 중개수수료 과다 징수 등 중개업자의 위법행위
 - ※ 위반시 부동산중개업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 중개업등록취소
 - **신고 및 연락처**
 - 중구 홈페이지 사이버민원신고센터 (홈페이지주소 : www.junggu.incheon.kr)
 - 중구 「부동산불법중개행위 신고센터」 (전화번호 : 760-7305)

❖ 내집주차장갖기사업 안내

- 자가주차장확보 촉진 및 이면도로내 원활한 교통소통등 쾌적한 주차환경을 조성코자 기존 담장이나, 이웃 간 경계담장을 철거한후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게 설치비의 일정액을 보조합니다.
- **보조대상**
 - 주차시설설치의무가 없는 주민이 주택내 또는 인접지역에 주차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 기타 주상복합건물내에서 가게 및 창고등을 폐쇄하고 주차시설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당해 주택 주소지에 등록된 차량대수 범위내에서 신규 또는 추가로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 **보 조 금** : 80~ 150만원
 - **문의전화** : 중구 교통녹지과 ☎ 760-7557

❖ G4C 인터넷 민원발급 2단계 서비스 실시

- 2003년 9월 토지(임야)대장등본, 개별공시지가확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의 3종 민원서류에 이어 주민등록 등 5종의 민원서류에 대한 인터넷 민원발급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 **서비스일시** : 2004. 1. 30(금) 09:00
 - **대상민원** : 주민등록등초본, 장애인증명, 농지원부등본, 모자가정증명 건축물대장
 - **대상지역** : 서울 강남구, 부산 동래구, 경기 고양시, 강원 춘천시, 전북 임실군
 - **서비스내용**
 - 전자정부 홈페이지에서 민원인이 대상민원을 신청한 후 본인의 PC에서 민원서류를 직접 출력
 - 민원서류를 수령한 기관은 전자정부 홈페이지에서 문서 확인번호로 민원서류의 진위여부 확인
 - **본격 서비스 실시** : 주민등록법 개정이후
 - **문의전화** : 문의전화 중구청 민원지적과

❖ 청소년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 기존 학생들에게만 이뤄졌던 각종 공공시설 및 수송시설 등의 무료 또는 할인 혜택을 비학생 청소년들에게도 부여하기 위한 청소년증을 2004년1월부터 발급해 드립니다.
- **대 상** : 관내 거주하는 만13세 이상 ~ 만18세 이하의 청소년
 - **용 도** : 청소년증을 제시하는 청소년에게 전국의 시내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요금할인, 극장 공연장 등 문화시설 이용료 할인혜택
 - **신청장소** : 주소지관할 동사무소
 - **제출서류** : 동사무소에 비치된 발급신청서 1부(3cm×4cm) 2매
 - **문의전화**

신포동사무소 ☎ 760-7900, 연안동사무소 ☎ 760-7910
신흥동사무소 ☎ 760-7920, 도원동사무소 ☎ 760-7930
울목동사무소 ☎ 760-7940, 동인천동사무소 ☎ 760-7950
북성동사무소 ☎ 760-7960, 송월동사무소 ☎ 760-7970
영종동사무소 ☎ 760-7980, 용유동사무소 ☎ 760-7990

❖ 여성건강교실에 초대합니다

- 여성의 가을...
『갱년기를 현명하게 극복하여 멋진 삶을 가꿀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 **수강신청** : 2004. 2. 25일 ~ 3. 5일 까지
 - **신청대상** : 40세 ~ 60세 사이의 중구 거주 여성
 - **교육기간** : 4월부터 ~ 5월 매주 금요일 오후 2시(주1회/총 8주간)
 - **교육시간** : 강의 및 운동 1시간 30분(강의 후 건강검진 실시)
 - **장 소** : 신흥동 중구보건소 2층 (노인복지회관 소강당)
 - **문의전화** : 중구보건소 통합보건실 ☎ 760-7662, 772-4001
 - **수 강 료** : 무료

❖ 취학전 아동 홍역확인사업 안내

- **대 상** : 2004년도 초등학교 취학예정자
- **기 간** : 2004. 2월~4월
- **사업내용** :
 - <2차 홍역예방접종자 통지서>배부
 - 접종자는 병원 및 보건소에서 확인서 발급
 - 미접종자는 접종실시후 확인서 배부
 - 입학후 학교에 접종증명서 제출
- **접종비 무료**
- **문의전화** : 중구보건소 예방접종실 ☎ 772-4001(ARS104)

❖ 중구 예비군 훈련 및 훈련소 변경 안내

- **예비군훈련부대 변경** : 제103보병여단(47관리대대→4대대)
- **예비군훈련장 변경** : 서구 공촌동훈련장→남구주안훈련장
- **예비군훈련기간 단축** : 현행 7년→6년
 - 1년차 훈련 강화 : 현행 소집점검(4H)→동원훈련(2박3일)
- **문의사항** : 주소지관할 동사무소 동대 연락바람

❖ 쓰레기배출요령

※ 쓰레기 규격봉투 미사용, 배출시간 미이행, 감량배출 및 분리보관 미이행 시 : 1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

쓰레기 종류	배출방법	수거일	연락처
생활쓰레기	가연성(흰색봉투), 불연성봉투(녹색봉투) 쓰레기를 따로 분리하여 담은 후 잘 묶어서 내집앞에 오후 8시부터 익일02까지 배출(단, 화요일 오후 부터 수요일 오전은 배출 금지)	매일 (재활용품 수거일 : 수요일제외)	단독주택 : 은성개발 ☎ 885-7922 공동주택 : 대한공해 ☎ 884-3671
재활용품 (종이류, 고철, 캔류, 병류, 플라스틱류등)	투명한 비닐봉투 사용, 반드시 묶어서 화요일 오후 8시부터 수요일 02 까지 배출	매주 수요일	단독주택 : 은성개발 ☎ 885-7922 공동주택 : 대한공해 ☎ 884-3671
대형폐기물 (가구, 가전제품 등)	스티커 구입,부착후 배출 삼원환경에 전화연락	매일	삼원환경 ☎ 773-9922, ☎ 572-9922
지정폐기물 및 가내수공업계폐기물 (기름걸레,고무,피혁,장판지,폐비닐, 이 미용머리카락등)	지정폐기물봉투구입,담아 배출 처리업체에 전화연락	매일 금요일	경인유화 ☎ 884-3061
소규모 건설폐기물 (벽돌,콘크리트, 깨진 유리,목재등)	건설폐기물봉투(pp마대)구입, 담아배출 구(환경관리과)에 전화연락	매일	중구 환경관리과 ☎ 760-7410, 7415
대규모 건설폐기물 (5톤이상) (벽돌,콘크리트, 깨진 유리,목재등)	구(환경관리과)에 배출예정일전까지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 하고 신 고필증 교부받아 배출	매일	중구 환경관리과 ☎ 760-7410,7415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체

☞ 규격봉투에 들어가지 않는 쓰레기와 일요일은 수거하지 않습니다.
또한,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시 최고 50만원까지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분리수거 및 쓰레기종량제 정착에 구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영유아 등에 대한 정기 및 임시예방접종 실시

중구보건소에서는 전염병 예방을 위해 영유아 등에 대한 정기 및 임시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 기간 : 1월 1일 ~ 12월 31일
- 대상 : 출생 후 1년 미만인자, 미취학아동(1~5세)이나 취학아동(초등1학년, 중등1학년), 접종을 희망하는 성인
- 접 종 비 : 무료
- 접종장소 : 중구보건소 예방접종실(1층)
- 지참서류 : 신분증 및 건강보험증, 기타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각종 서류 지참
- 문의전화 : 중구보건소 예방접종실 ☎ 772-4001

❖ 인천지체장애인 - 공지사항

인천지체장애인협회 중구지회에서는 다음사항을 알려드리오니 관내 거주 장애인 여러분께서는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 무료직업 상담소 운영
- 게이트볼 선수 12명을 양성할 예정 - 관심 있는 분 연락바람.
- 생활수기, 시, 수필- 2004년3월30일까지 원고모집(사진1매 첨부)
- 혼인식을 하지 않고 살고 계신분은 연락주세요.
- 휠체어 장애인중 국제 휠체어 마라톤 대회를 위해서 선수를 양성 하오니 200년 2월30일까지 연락바람
- 체육 예술부문에 관심있는 분(음악, 미술, 볼링) - 해당부문 전
- 문가와 상담후 무료레슨 예정(년중무후)
- 교통차량을 봉사하시고자 하시는 분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 인천지체장애인협회 중구지회 ☎ 764-8300 / FAX 772-1456

❖ 자원봉사 1365(일년삼백육십오일) 서비스 안내

중구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지역주민이 자원봉사센터를 좀 더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화번호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를 하고 싶거나, 자원봉사 받기를 원하는 경우, 기타 자원봉사센터에 문의하실 일이 있으신 분은 기존 777-1365를 누리지 않고 우리 구내에서 국번없이 1365번만 눌러도 바로 자원봉사센터에 연결됩니다.(본 서비스는 송신자의 인근 관할 구청 자원봉사센터로 연결됩니다.)

❖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센터 안내집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2004. 4. 15 실시하는 제17대 국회의원선거를 온 국민의 관심과 참여하에 바르고 깨끗한 모범선거로 치루기 위해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제보 접수와 각종 선거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선거법위반행위신고센터를 다음과 같이 운영하오니 선거법위반행위를 보시거나 들으신 분은 언제라도 신고·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용 :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제보 접수, 선거법 안내, 입후보 안내, 기타 관련자료 제공 등
- 이용방법 : 전화 또는 방문 (연중 상시)
- 전화번호 : 중구선거관리위원회(중구 경동 220번지) (☎ 763-6646, 1588-3939)
※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제보자의 신분은 절대 보장함은 물론 최고 5,000만원의 신고포상금도 지급합니다.

❖ 교육생 모집 안내

■ 기관별 모집안내

기 관	모집기관	모집과정 및 (모집대상)	문의전화
	교육기관		
인천남구여성 인력개발센터	2004년3월2일~3월21일	• 사회복지공동모금회지원 무료교육생 (30대후반이후실직여성중 취업을 희망자)	881-6060~2
인천여자고등학교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2003년12월15일부터 선착순마감(300명)	• 정규고등학교과정 (중학교졸업자 또는 예정자,검정고시합격자)	810-6317 810-6300
홍익디지털디자인 직업전문학교	2004년1월1일부터 선착순 마감	• 실내디자인,실내건축,정보통신설비, 캐릭터애니 메이션 (자격제한없음)	
인천종합사회복지관	선착순	• 도배 전통혼례음식조리사 • 발달장애 아동치료 • 치매주간보호센터이용자	873-0541~3
삼산종합사회복지관	2004년3월~2005년1월	• 무지개탐정단 7기 모집	529-8607~9
인천샬롬호스피스	2004년3월15일~5월24일	• 자원봉사자 교육생	434-7007
인천전문대학	2004년2월16일~3월26일 추가모집 선착순	• 산업체위탁교육 신입생	529-8607~9
인천대학교 시민대학	2004. 1.26~2.27 (공휴일제외)	• 정책,예술,교양, 화예학,아동미술 등 (성인남여)	770-8601~3 441-5394~5
인하대학교사회교육원 시민대학	현재부터~3월4일까지	• 여성교육문화(서인여성) • 여성사회참여(성인여성) • 중견지도자(성인남여)	860-8292~6

❖ 2004년도 문화, 교양강좌 수강생 모집

인천중구여성회관에서는 2004년도 문화, 교양강좌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 일시 및 대상 : 2004. 2. 16부터(신청시 주민등록증 지참 · 중구거주 여성)
- 교육기간 : 2004. 3. 8 ~ 2004. 5. 30
- 교육시간 : 오전 09:30 ~
- 교육과목 : 댄스 스포츠, 켈트, 노래교실, 칼라믹스, 수채화, 영어, 중국어, 일어, 양재, 컴퓨터, 에어로빅, 한국무용, 한국무용, 한자교실, 유아발레, 요가, 한 국화, 꽃꽂이
- 수 강 료 : 9,000원(월 3,000원)
- 원서접수 : 중구여성회관 ☎ 760-7336

❖ 장애인 무료컴퓨터 교육

인천시 장애인정보화협회 중구지회에서는 장애인의 정보화촉진과 컴퓨터를 활용한 재활교육으로 장애인 무료컴퓨터 교육을 실시합니다.

- 개 강 일 : 2004년 3월 3일 ~ 3월31일
- 교육대상 : 장애인 생활보호대상자, 국가유공자 및 자녀
- 교육과목 : PC활용반, 인터넷활용반
- 문의전화 : 장애인정보화협회 중구지회 ☎ 766-0076 / FAX 766-0086

구 분	이용시간	이 용 비	세부프로그램
장애아동 놀이치료	오전09:00~오후6:30 (매주월~금)	1회 17,000원	치료적놀이 및 인지행동놀이, 놀이게임 등
장애아동 운동치료	오전09:00~오후6:30 (매주 월,목,금)	개별 1회 17,000원 그룹 월 100,000원	운동, 일상생활동작기능 향상프로그램 등



도원동 새마을금고 금고 줌도리 행사

중구 도원동 새마을금고(이사장 최무웅)는 “사랑의 줌도리 쌀 모으기” 모금함과 금고 자체 기금을 출현, 지난 1월 17일 새마을금고 앞에서 도원동 관내 어려운 이웃 102세대에게 쌀 10kg을 전달하고 청소년 10명에게 장학금 10만원을 전달했다.



2004년 제1회 토지평가위원회 개최

우리구에서는 지난 2월 4일 구청회의실에서 이광목부구청장, 심의위원 등이 참석하여 2004년 표준지공시지가 심의를 위한 제 1회 토지평가위원회를 개최했다.



북성동 투표구위원회 시민주 청약

북성동투표구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 6일 인천 FC의 봄 조성을 위하여 시민주 공모에 동참하였다.



자활기관 협의회 대표자 회의

지난 2월 9일 구청상황실에서 이광목부구청장, 관련부서장, 자활협의체 대표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04년도 종합자활지원계획 수립 및 상반기 자활근로사업 위탁 여부심의를 위한 자활기관 협의체 대표자 회의를 개최했다.

신포동 통장자율회 시민주 청약 자율참여결의대회

신포동 통장자율회(회장 이광호)는 지난 2월 9일 출선수범하여 인천축구단의 제 2차 시민주 공모에 자율참여키로 결의하고 시민주를 1인당 2구좌씩을 청약했다.



생활속의 수필

작은 눈동자!!!!

작은 눈동자로 세상을 연다.
모진풍파, 세속, 거짓과 돈, 찌든 삶....
이것이 세상이야기라면
눈을 감아버리고 싶다.
서로사랑하고 지켜주고
약속을 지키고
마음을 줄 수 있고
서로 돕고 이웃간 문을
활짝 열어놓고 사는 그런 삶....
작은 눈동자에 넣고 싶다.
어린이 눈동자에서
우리는 맑고 티없는 세상을 본다.

■ 무명

우리동네 최고

얼짱. 몸짱이 현대인의 신드롬이 될 정도이다. 혹시 항동 연안부두에 몸짱들이 많다는 사실을 아는지?

오전 10시, 저녁 8시면 라이프 아파트내 노인정 3층에 연안부두 몸짱들이 모여든다.

주민자치센터에서 시행되고 있는 에어로빅, 음악교실, 중국어교실을 수강 모집한다는 현수막이 한달 째 펴려있고 있다. 문화교실이 시행 되어 온지 3년이나 되었는데 나 또한 관심을 두지 않았기에 모르고 지냈다.

주민이 조금만 관심을 둔다면 이런 좋은 문화교실을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데 너무 안타깝다. 이제야 알게 되었지만 이용해 보니 너무 좋은 것 같아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싶어 이 글을 적는다.

내가 살고 있는 연안부두는 참 살기 좋은 곳이다.

3층 건물인 노인정 1층은 어르신들이 편안히 쉬시며 재미있게 지낼 수 있는 공간이고 2층은 자녀들의 도서관이고 3층은 에어로빅실로 주부들의 심신을 단련하는 곳이다.

방학이면 할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연 만들기 시간에 자녀와 함께 배울 때는 동심으로 돌아 간 듯 재미있고 신난다. 할아버지의 꾸짖음, 칭찬도 신난다. 토요일이면 이루어지는 노래교실은 스트레스 해소에 얼마나 좋을 까 한번 참여하고 싶는데 아직은 주말이면 바빠서 이용해 보지 못했지만 음치인 내가 애창곡을 한번 바꿀 수 있는 좋은 기회 잤구나 생각하고 있다.

시간여유 있는 분 토요일 동사무소에서 2시에 만나요.

에어로빅은 내가 참여하고 있으니 자랑을 잘 할 수 있다. 에어로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간의 사랑도 전하는 곳이다. 아니 좋은 친구가 생기는 일이다. 아파트에서 이웃간에 잘 몰랐지만 아침마다 만나니 서로 반갑게 인사하게 되니 좋다. 같이 운동하는 이웃의 경조사에 참여하게 되니 즐거움은 두 배이고 슬픔은 반이 된다.

이웃이 아플 때는 바쁜 일 제쳐두고 병문안도 빼 놓지 않는다. 운동도 운동이지만 좋은 친구를 얻은 셈이다. 노소구분이 없다. 모두 친구인 셈이다. 전태자 에어로빅 강사님이 어린 사람이 아니고 세월의 흔적일까 젊고 생기발랄하지만 하시는 말씀은 가슴에 짝짝 꽂히는 명언이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하루에 10번하면 젊어진다고 한다. 나부터가 아니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한다. 운동 마감하는 시간 말씀 한마디가 교훈이 된다. 나, 너 아니고 우리가 됩시다. 오해는 하지말고 이해합시다. 우리 연안부두 멋지죠. 우리동네가 최고입니다. 놀러오세요.

■ 김은경 (항동7가 27 라이프(아))

손주녀석

이번 명절연휴는 유난히 추위가 심했다.

인간생사의 모습이 어김없이 변해가듯이 자연의 모습도 예외는 없었다.

올 겨울은 춥지 않아서 여기저기 개나리, 진달래꽃이 핀다는 소식이 들리더니만 숨어있던 추위가 대단한 위력으로 텃세를 부리고야 말았다.

설날에 다니러 온 3년4개월된 손주 승윤이는 아침에 눈만 뜨면

“아버지, 해 떴어요, 15번 버스타고 문 보러가요”라고 말한다.

하인천에 세워 놓은 ‘패루’를 보고는 “와 멋있다 멋있다” 감탄사를 연발하며, 더 어렸을때 부터 자꾸 다니기를 즐겼다.

화려하기도 하고 자기보다 훨씬 크게 보이는 것이 굉장히 멋있는 모양이다.

어린 아이의 특유하고 귀여운 어조로 승윤이는 신이 난다 “월미도 가서 바이킹도 보고 갈매기도 보고 배도 봐요.”

“공원에 공자할아버지도 있어요” 아침을 먹는중 마는중 하고 열린 가자고 재촉을 한다. 목도리를 작은 목에 단단히 두르고 노란 곰돌이가 달린 파란색 장갑도 끼고 두툼한 잠바를 입힌다. “할아버지도 옷 입어요 장갑도 끼세요”하며 할아버지의 옷차림까지도 챙긴다.

드디어 신나는 출발!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가면서 배웅하는 나를 몇 번이고 뒤돌아보고는 손을 흔들고 나중엔 제 손에 입맞춤하면서 작별인사를 한다. ‘얼마나 귀여운지’

버스 타는 맛은 제가 카드를 대고 뽉! 소리를 듣는 것이 또한 큰 몫인 것도 같다. 2시간 가까이 있다 들어온 아이는 찬 바람에 빨개진 얼굴로 눈을 동그랗게 뜨며 “할머니 문 4개 봤어” 2곳을 왕복하니까 바이킹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래 하나도 안 무서워 갈매기가 훨훨 날아다녀 하면서 신이 나서 말한다.

명절 음식을 차리느라 피곤 하지만 그렇게 순수한 모습을 그 애가 아니면 어디서 보고 느낄 수 있을까! 식구들이 모이거나 또 제 말을 들어주면 신이 나서 손부터 시작해서 몸통, 발까지 흔들며 춤추는 모습은 또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제 집에 갈때면 아쉬워서 울기도 하고 “하부지 하무이도 같이 타요, 같이 가요”하면서 찡한 사랑의 이별을 맛보게도 한다.

그 모습을 보면 불편한 모든 것들이 사라져 버리고 함께 동화되어 순간이라도 맑아지는 내 모습을 만나곤 한다. 하얀 조약돌이 보이는 파란 계곡에서 높은 하늘의 차가운 달에게서 공원의 앙상한 나뭇가지들 사이 티없는 창공에서도 우리는 진실한 자신모습의 맑음을 볼 수 있다.

그 것에 가족의 사랑이 더 보태어진 삶의 한 모습을 어린 손주녀석을 통해서 보았다.

봄이 가고 또 오고 여름...가을...겨울... 그러하듯이 세월은 허무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순환하며 변해 가는 것이다

아이들과 손주녀석을 보내고 한가로운 시간과 공간속에서 ‘2004년 새해에는 우리 모두 진실하고 맑은 마음에서 나오는 좋은 말과 좋은 행동으로 열심히 살아서 모두 모두 화목하고 행복해졌으며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본다.

■ 조미봉 (중앙동3가 3-11)

알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중구소식지를 사랑하는 주민여러분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생활속의 수필’ 코너가 일부주민만이 참여하여 다수 주민들의 진솔한 삶을 소개하고자 하였던 본래의 취지를 못 살리고 있어 부득이 종합적인 코너 변경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생활속의 수필’ 코너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신 주민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더욱 더 주민생활속으로 다가가는 『중구소식지』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비록 ‘생활속의 수필’ 코너가 없어지지만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긴 글은 지면을 할애하여 실어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중구소식지』에 많은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주세요. 감사합니다.

중구 여성합창단 단원 모집



아름다운 노래와 봉사활동으로
사회 곳곳의 외로운 이들에게 따스한 위로를 주고
각종 행사를 빛낼 용기있는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사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모집인원 : 00명
- 접수시간 : 2004년 2월 23일 ~ 3월 31일
- 접수처 : 중구청 문화공보실, 각 동사무소
- 자격 및 선발기준 : 중구관내에 주소를두고 합창에 소질이 있는 20세 이상 50세 이하 여성

- 의무 및 대우 : 무보수 명예직. 선발된 인원은 각종 공연 및 행사 참가시 「중구」를 대표
- 제출서류 : 신청서 1부(구청 및 동사무소 비치), 반명함판 사진 2매
- 문의처 : 중구청 문화공보실 (☎ 760-7136), 중구 여성합창단 (☎ 018-313-7995)

도시 보행자의 보행권 확보 및 도시경관 조성을 위하여 불법 옥외광고물 일제 정비에 참여합시다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에 의한 광고물의 일반적 표시방법

- 광고물의 문자는 한글로 표시 하되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엔 한글과 병기하여야 함.
- 규정된 면적과 높이를 초과할 수 없으며, 교통·통행 등에 지장이 없도록 표시하여야 함.
- 지면이나 건물 기타 공작물 등에 고정되지 아니하고 이동이 가능한 간판(입간판)은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 1개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은 3개 이내로 한다. 다만, 도로의 곡각 지점에 접한 업소는 4개 이내로 한다.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에 의한 광고물의 종류

■가로형 간판

- 1개업소에서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하여야 한다(단, 곡각지점 1개 추가 표시 가능)
- 가로크기는 당해 건물의 폭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세로크기는 윗층과 아래층의 창문간 벽면의 폭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돌출간판

- 간판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3미터(인도가 없는 경우에는 4미터) 이상 이어야 하고, 그 상단은 당해 건물의 벽면 높이를 초과금지
- 1개업소는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
- 간판의 바깥쪽 끝부분은 벽면으로부터 1.2미터를 초과하여선 않됨.

■옥상 간판

-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에 있는 5층이상의 건물에만 표시(자가 건물인 경우 5층 미만에도 표시 가능)
- 가로를 접한 1면의 면적은 300제곱미터이내(가로 최대길이 30미터이내), 세로를 접한 1면의 면적은 225제곱미터 이내(세로 최대길이 20미터이내), 높이 15미터 이내로 하되, 그 높이는 건물높이의 2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지주이용 간판

- 지주이용 간판의 상단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를 1면의 면적은 10제곱미터를, 간판 면적의 합계 면적은 30제곱미터를 각각 초과할 수 없음.
- 지주이용간판은 건물의 부지안에 표시하여야 하며, 차도 또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0센티미터이상 거리를 두어야 한다.

불법 옥외광고물 일제 정비 추진 안내

- 정비 기간 : 년중지속
- 정비 대상 : 불법·무허가 옥외광고물 전수
 - 유동 광고물 : 현수막, 입간판, 벽보, 전단지 등
 - 고정 광고물 : 가로형·돌출형·옥상·지주형·기타광고물
- 정비 방법 : 1차 계고 조치 후 이행강제금 부과 및 강제 철거 예정
 - ※ 광고물 설치전 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광고물관련 문의 : 중구 도시과 도시경관팀(760-7520)

인 천 광 역 시 중 구

"엄마, 나 닭고기 안심하고 먹을 수 있어요!"

고병원성 가금인플루엔자와는 상관없이...

닭고기, 오리고기는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작은 사랑이 따뜻한 사회를 만듭니다

중구의 자원봉사자로
등록을 해주세요!



자원봉사는 타인을 돕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 함께하는 활동입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만남과 나눔의 장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어떠한 분야도 좋습니다.

자원봉사는 국번없이 『1365』를 누르세요

인천광역시 중구 자원봉사센터
인천광역시 중구 관동1가 9-1 (중구청내)
문의전화 : ☎ (032) 777-1365, 770-7206/7, FAX 760-7209